

행복이 가득한 집

Design your lifestyle

생활을 디자인하면 행복이 더 커집니다



Since 1987

독자들에게 항상 새로운 생활 문화를 제시해온 〈행복이가득한 집〉

〈행복이가득한 집〉은 1987년, 올림픽을 1년 앞두고 온 국민이 좀 더 멋지고 즐겁게 사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될 무렵 세상에 처음 선보였습니다.

〈행복이가득한 집〉은 1987년 9월 국내 최초로 연예인, 정치인 스캔들 기사가 없는, 가정의 식탁 위에 놓고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lifestyle magazine으로 태어나 마음과 영혼과 육체에 양식이 되는 쉼터 매거진 shelter magazine으로 끊임없이 발전해왔습니다.

1991년 1월부터 ‘무료로 집을 예쁘게 꾸며드립니다’ 라는 캠페인으로 무려 6년 동안 매달 독자들에게, 전문가의 손으로 디자인의 힘이 살아나는 공간의 행복을 만들어드렸습니다.

1994년 3월부터 지면에서만 보던 생활 인테리어 디자인을 실제 전시를 통해 체험하고, 새로운 경향을 리드하는 브랜드와 유명 디자이너를 독자들이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서울리빙디자인페어를 시작해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1998년 12월 ‘아직도 시집을 때 해 온 색동 방식을 쓰세요?’ 라는 제목으로 선보인 광목 방식이 무려 7천 장 이상 팔린 것을 계기로 안방에서 장 보기 프로그램인 ‘행복이가득한 쇼핑’ 을 운영하면서, 남다른 정성과 생각을 가진 생산자가 제공하는 믿을 수 있는 제품과 더 좋은 제품을 갖고자 하는 독자들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2007년부터는 인터넷 쇼핑으로까지 확대하여 ‘스토리샵’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 5월부터는 살림살이 아카데미, 행복문화 아카데미, 전통문화 아카데미 등 ‘행복이가득한 교실’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Homeliving & Style〉 has always strived to convey the latest cultural trends and developments, in terms of family issues, health matters, and personal finance.

〈Homeliving & Style〉 was first published in 1987, a year before the 1988 Seoul Olympics. The launch aimed to satisfy the public’s blossoming interest in self-improvement and desire for a change in lifestyle. The publication met both the practical needs and aesthetic aspirations of Koreans.

September, 1987 〈Homeliving & Style〉 is a lifestyle magazine that avoids tabloid gossip and kiss-and-tell stories. As such, it is suitable for all the family. This approach accurately reflects our overall business philosophy: to promote core family values.

January, 1991 〈Homeliving & Style〉 launched We’ll Help You Makeover Your Home, which was an unprecedented and hugely successful program, designed to show readers how to improve their homes. This included tips on design concepts and principles, as well as redecoration styles and techniques.

March, 1994 ‘Seoul Living Design Fair’ is held annually to give readers an opportunity to get a first-hand glimpse of the latest interior design trends, the best brands, and to meet leading professional designers.

December, 1998 Following its successful cotton cushion sales promotion, which sold more than 7, 000 units, 〈Homeliving & Style〉 embarked on another shopping program, Happy Shopping. It enabled readers to easily shop for quality products and trades services from the comfort of their homes. In 2007, these products and services were made available online at the Story Shop shopping mall, in order to meet the surge in demand.

May, 2008 To actively promote well-being, fulfillment and cultured lifestyle, we offer a wide variety of classes. These include traditional Korean culture and home economics,



대한민국 잡지의 자존심 〈행복이 가득한 집〉의 콘텐츠

우리나라 잡지 중 가장 많은 정기구독자, 가장 충성도 높은 독자를 자랑하는 〈행복이 가득한 집〉.
‘로컬 잡지의 지존’이라는 별칭이 부끄럽지 않은 가치 있는 콘텐츠를 담았습니다.

〈Homeliving & Style〉 Contents: Widely Acclaimed & Incredibly Popular

〈Homeliving & Style〉 lays claim to the largest readership in Korea, largely because it delivers the finest, most inspirational content available of any Korean magazine.

1. innovation 더 나은 삶과 세상을 위한 바꾸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오늘을 즐겁게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혁신의 멘토가 되는 공간입니다.

주부 CEO의 행복한 가정 경영법, 생각을 디자인해 세상을 바꾼 사람들, 나를 치유하는 공간과 물건을 주제로

행복한 가정, 사회 공헌, 친환경 등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이슈를 독자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캠페인성 특집을 연재합니다.

2. solution 생활 문제, 속 시원하게 해결하기

큰 집을 여는 것은 작은 열쇠입니다.

knowhow와 knowwhere를 얻는 공간입니다.

인테리어·가드닝·요리·릴레이션십·패션·뷰티 파트의 구체적인 적용 방법과 응용법이 전문가 제안,

독자 체험, 유명 인사의 노하우 등을 통해 더욱 친절하게 제안합니다. 전문가가 직접 인터뷰하는 칼럼과

독자 사용 후기, 독자 블로그 소개도 추가합니다.



3. community 마음과 정보와 지식과 지혜 나누기

나는 작지만 우리는 큼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우리의 수다 공간입니다.

행복 커뮤니티의 인물·문화·아트를 만나면 일상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마음과 지혜를 나누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 트렌드와 교양과 문화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놓습니다.

‘행복이 쪽쪽’에서는 쉬어 가는 글과 그림으로 잡지 속의 쉼터 같은 여유로움을 줍니다.

4. relax 노는 것처럼 즐기, 쉬는 것처럼 쉬기

비워야 더 좋은 것이 채워집니다.

참다운 휴식을 제안하는 공간입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잘 놀고 잘 쉬는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에너지를 주는 파티 문화, 고택 체험, 여행 등 다양한 휴식 방법을 소개합니다.

유명인과 독자의 전원주택과 별장, 독자 체험 여행도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5. 자연이 가득한 집

자연은 마음의 고향입니다.

자연은 건강의 고향입니다.

건강의 고향을 찾아서(지방 특산물&여행), 해외 오가닉 라이프, 친환경 의식주 정보 소개로 구성됩니다.

지방의 특산물과 여행, 요리가 결합된 칼럼에서는 독자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하우징&데코 국내외 인테리어와 건축 트렌드, 최첨단 아파트와 한옥, 가구와 가전제품, 패브릭 **30~35%**

교양&문화 문화와 예술, 여행과 레저, 건강과 교육 **20~25%**

쿠��&다이닝 손맛의 비결과 슬로푸드의 매력, 상차림과 레스토랑 정보, 와인과 디저트 **15~20%**

패션&뷰티 코디네이션 제안, 명품의 재발견,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다이어트 피트니스 **20~25%**



〈행복이 가득한 집〉 제호의 새로운 디자인

(주)글씨미디어 홍동원 대표가 조선 제14대 왕인 선조의 부인 인목대비의 글씨체를 기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인목대비의 글씨체일까요?

첫째, 한글 서체의 원형입니다.

〈행복이 가득한 집〉은 다른 여성 잡지들이 모두 한자어로 된 이름을 쓰던 22년 전에 이미 국내 최초로 한글로 풀어 쓴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호의 새로운 디자인에도 한글 서체의 원형을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인목대비는 획이 돌을 뚫는다는 남성적인 예서와 획이 강철 같은 마음도 녹인다는 여성적인 해서에 모두 통달하고 두 글씨체를 잘 조화시킨 분입니다. 많은 서체 전문가들은 우리가 현재 가장 많이 쓰는 신명조체의 원형을 만드신 최정호선생도 인목대비의 글씨에서 한글 서체의 원형을 찾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둘째, 행복을 향한 소망입니다.

〈행복이 가득한 집〉은 이름 그대로 여러분에게 행복을 드리기 위한 잡지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행복과 아름다움은 종종 행복한 사람들보다 불행한 사람들 속에서 더 잘 드러납니다. 인목대비는 선조의 총애를 받고 있을 때 지식인의 양심으로 영창대군을 왕으로 책봉한다는 교지를 꺾고 광해군이 왕이 되게 하였으나 바로 그 이유로 친정아버지는 흙 속에 묻고 아들은 가슴에 묻으며 폐서인되어 지금의 덕수궁인 서궁에 유폐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상지옥에서 자신의 불행을 다스리고 만백성의 행복을 소망하며 한 획 한 획 쇠를 담금질하듯 만든 글씨체가 바로 오늘날 전해오는 인목대비체입니다. 〈행복이 가득한 집〉은 인목대비의 그 행복을 향한 소망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정기구독자를 자랑하는 잡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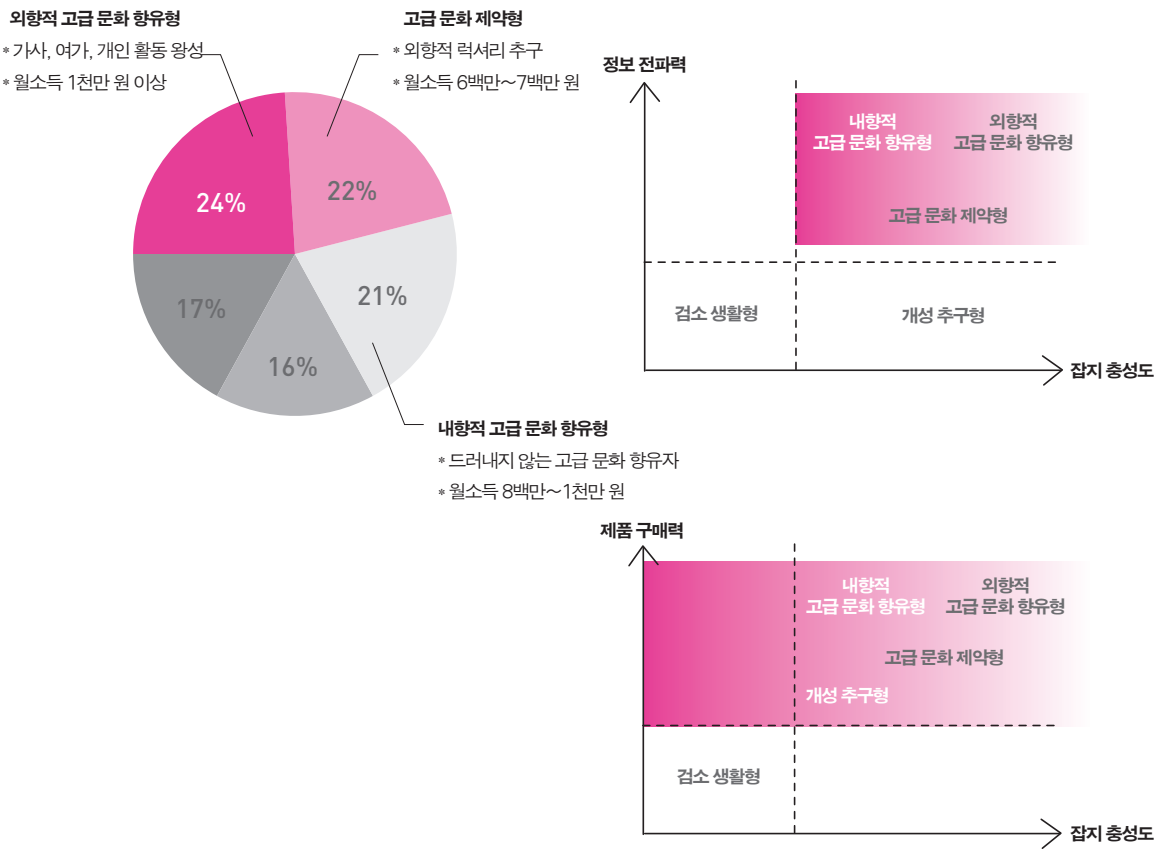
‘로컬 잡지의 지존.’ 진정성을 담은 기사와 정선된 광고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열성적인 정기구독자를 보유한 <행복이 가득한 집>에 이런 별칭이 붙여졌습니다.

혼자 보는 잡지가 아닌 온 가족이 함께 보는 잡지, 단행본처럼 오랫동안 보관하고 싶은 잡지라는 평가를 받으며 최고의 광고 효과를 자랑하기에 지난 22년간 발행 부수와 판매 부수가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A community-oriented magazine with the most subscribers

<Homeliving & Style> earned the title, ‘Throne of Local Magazines’ by successfully combining quality articles and selective advertising. Every publication aims to cater to all family members’ interests and, as such, many readers keep hold of old editions for future reference. These contributory factors have helped the magazine to go from strength to strength over the last 22 years, both in terms of circulation and reputation.

<행복이 가득한 집> 독자들은 정신과 물질적 풍요로움을 즐깁니다.



라이프스타일지 열독률 1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정기구독자를 자랑하는

<행복이 가득한 집>은 한 번 구독하면 계속 보게 되는 중독성을 지녔습니다.

나와 가족의 행복을 꿈꾸기에 사고 싶은 것도, 사야 할 것도 많은 고급 소비자들. 의식주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광고주들이 원하는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잡지가 바로 <행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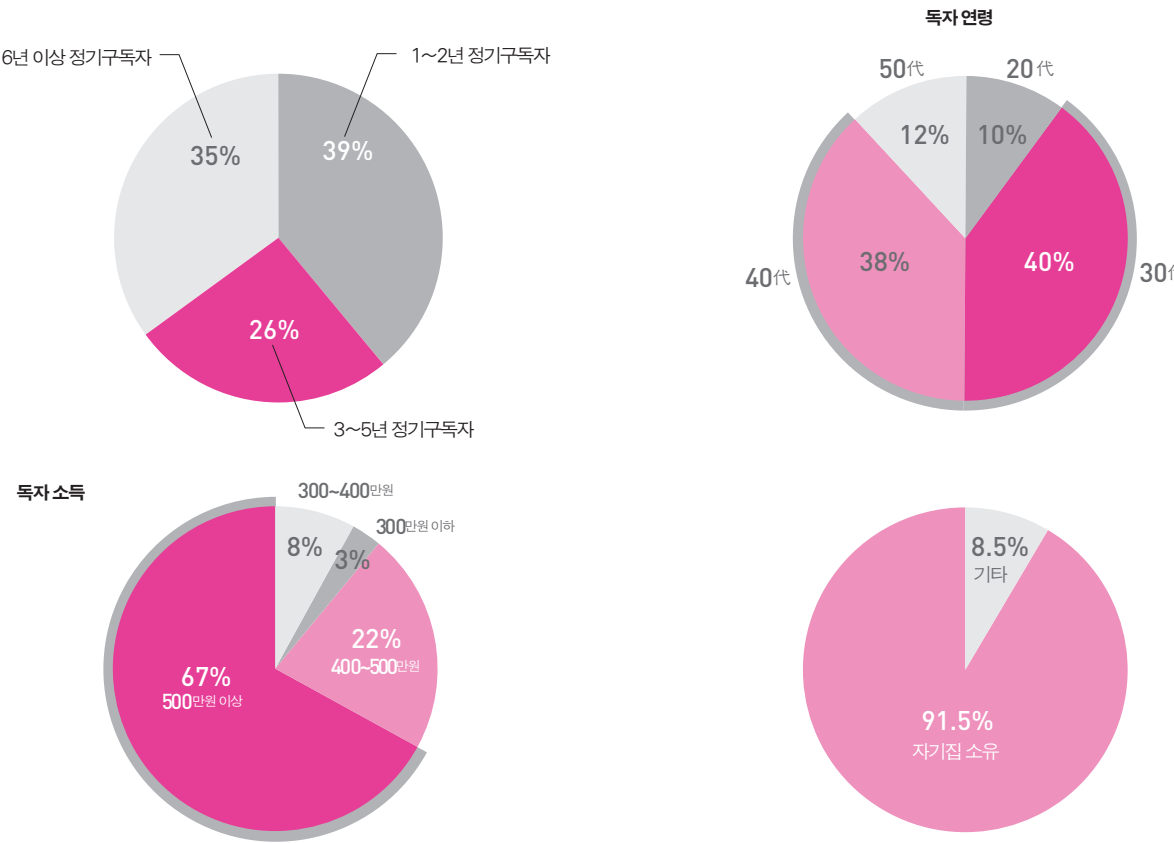
<Homeliving & Style> has the largest readership of any special interest magazine in Korea,

For most readers, once they pick it up it’s hard to put down,

<Homeliving & Style> has a huge following of readers who want to learn about or shop for quality products,

A wide variety of advertisers promote their products and services, including clothing, food and lifestyle items. The magazine is an excellent forum for advertisers to reach their target audiences,

<행복이 가득한 집>은 오랜 친구 같은 독자가 참 많습니다.



안목 있는 독자들을 위한 문화 서비스 ‘행복이 가득한 교실’



〈행복이 가득한 집〉은 독자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생활을 디자인해 행복을 더욱 크게 만들 수 있는 지혜를 배우는 ‘행복이 가득한 교실’을 2008년 5월 개설했습니다. 행복이 가득한 교실은 그간 주제별로 비정기적으로 진행하던 클래스를 정기 프로그램으로 엮은 것으로 2008년 5월에 시작하여 2009년 7월 현재 13기째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5백여 명의 안목 있는 독자들이 행복이 가득한 교실을 수강했습니다.

- 행복이 가득한 특강 ● 행복이 가득한 여행 ● 제품 체험단 ● 무료 강좌

The culture event for the discerning reader “A class of full of happiness”

In order to address the needs of our readers, 〈Homeliving & Style〉opened a series of classes in May 2008 called, Happy Classes. The objective was to help readers to develop specific cultural knowledge and practical skills, as well as enabling them to achieve their lifestyle goals. Now the program consists of 13 regular ongoing classes, with an average of over 500 attendees.

- Special Lectures ● Happy Travel ● Product experience group ● Free cl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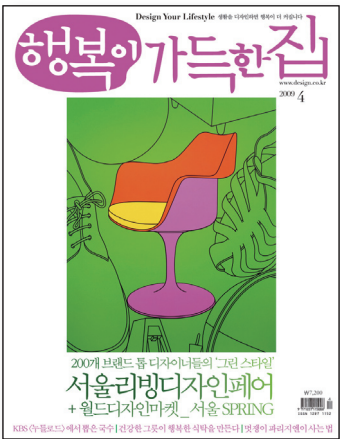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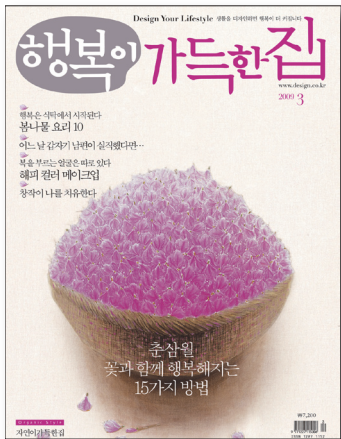
〈행복이 가득한 집〉은 브랜드 광고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행복이 가득한집 ↔ BRAND



기획 기사	비주얼 광고	독자 마케팅	기획 캠페인	오프라인 행사
-------	--------	--------	--------	---------

appendix



Editorial 편집

Editor-in-Chief 양은경 국장 ekyang@design.co.kr

Deputy Editorial Director 구선숙 편집차장 kss@design.co.kr

Housing & Deco 주거문화

Editor 김성은 팀장 sekim@design.co.kr

Editor 이지현 기자 jhyi@design.co.kr

Editor 황여정 기자 yjhwang@design.co.kr

Features & Culture 문화교양

Senior Editor 최혜경 팀장 hkchoi@design.co.kr

Editor 나도연 기자 doriver@design.co.kr

Cooking & Dining 음식문화

Senior Editor 이화선 기자 sunshine@design.co.kr

Fashion & Beauty 패션뷰티

Editor 김윤희 기자 yunhwa@design.co.kr

Art 미술

Art Director 김홍숙 아트디렉터 khs1026@design.co.kr

Senior Designer 조정미 기자 may0527@design.co.kr

Designer 최은숙 기자 tleoni@design.co.kr

지면구분	PAGE	POSITION	AD RATE(KRW)	
표2 표2 대면	2	1st DPS Inside Front Cover DPS (IFC)	26,000,000	DPS_Double page spread
내지 2번째 양면 페이지	2	2nd DPS	24,000,000	
3번째 양면 페이지	2	3rd DPS	22,000,000	
4번째 양면 페이지	2	4th DPS	20,000,000	
5번째 양면 페이지	2	5th DPS	18,000,000	
6번째 양면 페이지	2	6th DPS	16,000,000	
	4	Content	9,000,000	
	5	Masthead, Contributors , Reader's letter	8,000,000	
행복 안내나	4	Single page	7,000,000	
행복감각	5	Fashion, Beauty, Living news	6,500,000	
일반 기사 대면		Single page facing articles	6,000,000	
기사성 광고		Advertorial	6,000,000	
표3 표3 대면	2	Inside Back Cover DPS	15,000,000	
표3	1	Inside Back Cover single page	8,000,000	
표4	1	Outside Back Cover	26,000,000	

TECHNICAL DATA FOR HOMELIVING&STYLE MAGAZINE

색도 color	올컬러, C,M,Y,K	발행 부수 circulation	10만부, 100,000copies/month
인쇄 printing	윤전 인쇄, Rotary Printing Press	발행일 in market	매달 22일, 22th of every month
편집 페이지 editorial	300페이지, 300pages	발행인 publisher	이영혜, Young-Hye Lee
기사 마감 editorial close	매달 10일, 10th of each month	발행사 publishing comany	(주)디자인하우스 Design house Inc.
광고 마감 ad close	매달 18일, 18th of each month	광고 문의 ad contact	Tel. 2262-7301~4
판형 format	5×7배판(228×300)	웹하드 webhard	ID:homeliving PW:6151

ADVERTISING & DISTRIBUTION

부장 General Manager	송용하	2262-7301	010-5383-9932	yhsong@design.co.kr
과장 Jr. Manager	김 철	2262-7303	010-3044-6801	kc@design.co.kr
과장 Jr. Manager	안진형	2262-7305	011-496-1207	ajh@design.co.kr
대리 Assistant Manager	김희주	2262-7304	010-6410-3225	hjkim@design.co.kr



designhouse

(주) 디자인하우스 |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162-1 태광빌딩 (우)100-855 | 〈행복이 가득한 집〉 광고 문의 2262-7301
Taekwang Bldg., 162-1, Jangchung-dong 2-ga, Jung-gu, Seoul 100-855, Korea C.P.O. box 2532



㈜디자인하우스 DESIGN HOUSE Inc.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162-1 태광빌딩 (우)100-855
Taekwang Bldg.,162-1 Jangchung-dong 2-ga, Jung-gu, Seoul 100-855, Korea C.P.O. box 2532